

#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이 병 윤 (연구위원, 3705-6343)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크게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은행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내은행들이 단기 실적 위주 경영전략, 취약한 전문인력 및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사업구조로 과열경쟁을 해온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국내은행들은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줘 왔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에 쌓였던 부실을 털어냈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 구조조정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은행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실물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수익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적극적인 상업은행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또한 합병을 통한 대형화, 외국계은행의 진입, 선진적 금융규제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점차 선진 은행산업의 면모도 갖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은행의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위기의 조짐만 보이면 국내은행은 유동성, 수익성, 건전성 등이 빠르게 악화되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국내 은행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며 크게 발전해 왔으나 아직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다수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은행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높고 세계최고 수준의 IT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도 탄탄한데 유독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은행 산업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미흡한 수익창출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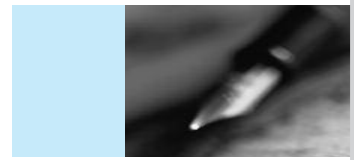
국내은행의 수익창출 능력이 미흡한 것은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과열경쟁을 하는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4조원으로 작년 2/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자이익이 견조한데다 작년에 부실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수익창출 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반은행의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2005년말 3.08%를 기록한 이래 계속 떨어져서 2010년말 현재 2.43%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의 합을 총자산으로 나눈 핵심이익률도 2004년 3.2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10년말 현재 2.5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전략, 취약한 전문인력 기반, 단순한 수익구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국내은행들이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은행들이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국내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해외진출을 통한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초국적지수(transnationality index)<sup>1)</sup>를 보면 2010년말 현재 국내은행은 3.6%에 불과한 데 비해 UBS나 도이치은행 등은 2006년말에 이미 70%를 훌쩍 넘어

국내은행의 수익창출 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해당 기업의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비중, 총수익 대비 해외수익 비중 및 총직원수 대비 해외직원수 비중 등 세가지 지표의 산술평균



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은행들은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또 선진 은행들과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경영리스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을 하기 전에 해외시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 능력, 상품개발 능력 및 리스크관리 능력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유사사업으로의 쏠림현상

한편 국내은행들의 영업행태를 살펴보면 유사한 사업으로의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의 은행 영업행태를 보면 2000~2006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에 집중하여 과열경쟁을 해오다가, 2006년에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이후 중소기업대출 확대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2010년 3/4분기에 가계대출 규제가 다소 완화되자 다시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퇴직연금, 신용카드업 등의 경우를 보아도 국내 거의 모든 은행들이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은행의 영업행태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과열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리스크도 커져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은행들의 이러한 영업행태 쏠림현상은 한정된 국내시장 영업에 집중하는 국내은행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라 판단된다. 좁은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해 수익을 내려면 조금이라도 수익기회가 큰 분야에 영업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은행은 유사사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실물경제 규모 대비 대형 은행 부재

지난 2009년말 UAE 원전 수주 당시 UAE 정부는 공사 이행을 위해 세계 50위 안



은행 대형화는 규모의 경제효과, 자본력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 등 장점도 있지만 독과점 증대 및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의 단점도 있어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 드는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50위권의 은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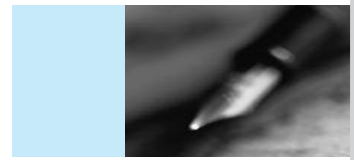
우리나라 은행들은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몇 번의 합병을 거치며 대형화되어 왔다. 하지만 2010년 「The Banker」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 세계 은행 순위에서 국민은행이 69위, 우리금융(우리+경남+광주은행)이 71위, 신한금융(신한+제주은행)이 84위에 그쳐 세계적인 은행들과는 규모면에서 아직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5위권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보다는 훨씬 자본규모가 큰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국 GDP 대비 자산규모 1위 은행의 총자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작아 은행이 좀 더 대형화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대형화하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높아진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도 유리해지며 또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합병에 의해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은행산업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독과점화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 대형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다.

합병에 의해 국내은행이 대형화되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국내은행이 지금보다 더 대형화된 후에도 현재처럼 국내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독과점이라든지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 은행 대형화에 따른 단점들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은행의 대형화는 해외진출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형화의 단점을 완화시키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은행의 공공적 역할 강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수출 위주의 경제개발 단계에서 은행의 실물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이 강조되어 온데다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은행에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은행의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매출을 크게 올려 높은 수익을 달성하면 기뻐하면서도



은행이 높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은행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청구인 수수료에 대해서도 다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은행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고 따라서 규제로 인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또 금융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은행이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은행도 본질적으로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대가도 받아야 하는 상업적 경제주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은행이 공공성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도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은행의 수익성이 제고되면서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은행은 어느 정도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며 영업하는 사적 기업이며 사회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맺음말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눈에 띄게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전략, 취약한 전문인력 및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과열경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허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제는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전략도 수립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사업도 다각화하고 새로운 수익원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부분 은행이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부합되게 감독과 정책이 집행될 때 은행들이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 및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도 자기책임하에 경영능력도 배양해야 하며 위기 시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은행산업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은행산업 구조개편 및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F**

최근 국내 은행산업에서 인수·합병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은행산업 구조개편 및 국내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